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성경본문 <민수기 12장 1절 ~ 16절>

[1]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11]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3]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15]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16]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벌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고, 7일 동안이나,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모세와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1. 비방하는 말을 하는 이유 - 교만

[1]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취한 구스여인은 그가 미디안 땅으로 피해있을 때, 결혼했던 아내, **'십보라'**였다고 보는 견해(미디안과 구스를 동일한 장소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와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얻**

은 여인이라고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학자들은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가 또 한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했다면, 그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에 해당되는 말이고, 구스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비방을 하려고 하면, 할 만한 상황이고, 아니라면 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비방을 벌하셨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했던 말을 통해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할 만큼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던 말은, **그들 스스로 모세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와 견주어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고 또 미리암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이였고, 그 만큼의 친밀함이 있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구라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앞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침묵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 - 온유함.

하나님께서 ... [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은 모세가 [3] ...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내 던져 깨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다고 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침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시며,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세의 온유함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도제목>

1. 우리 안에 있는 비난의 영, 불만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2. 주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 말하고, 듣게 하소서.